SmartWhistle
윤리경영 Newsletter 2019년 3월호

1. 최근 동향 및 소식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부패, 이번엔 뿌리뽑는다
- 브라질 연방검찰, 테메르 전 대통령 부패혐의로 기소
- '부패·공익신고',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 권익위 "버닝썬 사태, 공익 신고·부패 신고 2가지"

2. 윤리경영 실천 사례
- [영국]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

3. 청렴 위반 사례
- 산하기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혜채용 빌미 제공
- 산하기관에 소속기관장의 자녀 및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4. 지식마당
- [독일] 글로벌 CSR의 방향

5. Quiz

6. 관련 행사 및 독자 의견

최근 동향 및 소식

1.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부패, 이번엔 뿌리뽑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무시 관행을 '안전분야 부패'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도 구성했다. 참여기관은 각 분야에 퍼져있는 안전부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해 감사·감찰을 추진하는 등 안전분야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019년도 안전분야 반부패 업무 개선 내용 >

	2018년도	2019년도
소재선정	▫ 참여기관 자율적 선정	▫ 안전외주화 등 국민생활 밀착형 주제 선정
추진방법	▫ 감사·감찰 부서 단독	▫ 관계기관 합동감찰 및 협업 강화
기 타	▫ 안전분야 감찰 자료 부족	▫ 중앙부처 감찰결과를 시도에서 환류

정부는 올해에도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감찰·감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공기업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등을 부패관점에서 살필 수 있도록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http://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948

2. 브라질 연방검찰, 테메르 전 대통령 부패혐의로 기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검찰이 29일(현지시간) 미셰우 테메르 전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했다.

테메르 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인 모레이라 프랑쿠 전 광업에너지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테메르 전 대통령과 프랑크 전 장관에게는 남동부 리우주(州) 앙그라 두스 헤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앙그라-3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횡령과 돈세탁 혐의가 적용됐다.

테메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는 2014년부터 계속되는 권력형 부패수사에 따른 것이다.

사법당국은 2014년 3월 17일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의 부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는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30006700094?input=1195m

최근 동향 및 소식

3. '부패·공익신고',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존의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가 청렴포털(www.clean.go.kr)로 개편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자 인증절차에 이중보안 기능이 추가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8일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렴포털(www.clean.go.kr)을 구축·개통했다.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한 청렴신문고는 부패·공익신고 신청 시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편된 청렴포털은 신고자가 이런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맞춤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권익위원회에 축적된 판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된 1000여건의 사례를 청렴포털에 새롭게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0

4. 권익위 "버닝썬 사태, 공익 신고·부패 신고 2가지"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4일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버닝썬 건의 경우 공익 신고와 함께 일부는 부패 신고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보에서 다양한 비리 및 부패 혐의가 포착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익 신고는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 돼야만 공익 신고로 인정된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 중 일부가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속하지는 않지만 포착된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 신고로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권익위는 공익 신고를 받은 뒤 증거 등에 대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이첩 △송부 △종결 등 3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번 건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1414323497980

윤리경영 실천 사례

[영국]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청년들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이슈이다. 국제투명성기구 조 로버 (Joe Roeber)의 연구에 따르면 40%의 발생하는 부패사건이 무기 거래에서 발생하여 방위산업이 가장 부패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임을 말해준다. 많은 국가들이 방위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부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영국의 강력한 '반부패법'은 좋은 사례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한다.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

'부패인식지수 17위에서 8위까지의 눈부신 성장'

2010년에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은 영국의 기업을 넘어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에이전트까지 적용됨으로써,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최고 10년 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반부패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이행되었을 때에는 면책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영국에서 발표한 민간 부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에서는 방위산업의 부패예방을 강조한다. 이는 2000년대 중반의 'BAE 시스템즈'의 뇌물 스캔들로 인해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통해 기업의 노력과 언론 및 시민사회의 참여로 2015년에는 국방 반부패 지수(Government Defense Anti-Corruption Index) 에서 뉴질랜드와 함께 A등급을 받은 국가로 선정되었다.

BAE 시스템즈의 뇌물 스캔들

영국 방위산업의 적극적인 부패 척결의 계기는 BAE 시스템즈의 뇌물 스캔들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안보보좌관인 반다르 빈 술탄왕자가 약 10여년 동안 10억파운드 (1조 8489억원)가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지만 국가안보의 이유로 영국정부가 묵인했음을 <가디언>,<BBC>에서 보도했다.

친서방 정책을 주도해온 반다르 왕자는 영국 역사상 최대 무기판매계약을 성사, 약 20년 동안 전투가, 훈련기 및 각종 미사일 등 430억 파운드(79조 4657억)의 군사장비를 판매했다.

계약서의 비밀 부속조항에는 반다르 왕자에게 전해진 돈이 '마케팅 비용'으로 기재되었으며, 이를 승인한 영국 국방부 또한 비자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2004년 당시 중대비리조사청(SFO)에서 뇌물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국교 단절을 빌미로 사우디 정부가 수사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2006년 돌연 조사가 중단되었지만, 사회의 관심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조사를 통해 기소대신 벌금형 처해졌다.

반부패에 앞장서는 영국 군수업체들

1. 롤스로이스 PLC (Rolls-Royce PLC)

미국의 GE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여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항공기에 엔진을 탑재하였다.

2012년, 해외시장에서의 뇌물 및 부패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으로 5년, 3년의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반부패 이행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업문화가 변화를 위해 주수 프로그램의 설계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13년, 전문가인로드 골드(Lord Gold) 을 선임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행동규범 (Global Code of Conduct)

롤스로이스 PLC는 사업을 영위하는 21개국의 언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을 포함하여 파트너쉽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자사의 행동규범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한다. 'TRUST Model'을 통해, 동료의 부정행위 목격에 대한 행동 및 제보에 대한 단계별 안내 등 상황판단 가이드 및 사례를 제공하여 내부고발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윤리경영 실천 사례

'윤리 핫라인'을 구축하여 온라인(19개국 국어) 및 오프라인(49개국 언어)으로 24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채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핫라인에 접수된 질문과 제보에 대한 대응에 관련하여 한 달에 한번씩 롤스로이스 PLC의 경영진 회의에 보고되고 있다.

지역별 윤리 자문위원(Local Ethnics Advisor)제도

롤스로이스 PLC 직원들 중, 일상 업무에 정소하면서 약 5~10%의 업무시간을 동료직원들의 상담, 교육 및 제보의 대면접수에 관련해 시간을 할애한다. 2년 임기의 자문위원은 사업장의 문화 및 사업의 속성을 고려하고 자문위원의 직급, 성별, 천문성 및 과거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약 9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전 세계 롤스로이스 PLC 사업장에 있다.

2. 레오나르도 (Leonardo s.p.a)

이탈리아에 본사가 위치하며, 영국에서 활동 중인 여러 자회사들을 통합하여 영국 법인을 설립하였다. 2010년도에 인도 국방부의 자회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ugutaWestland)와의 계약 당시, 민간 사용 목적인 헬리콥터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패 혐의로 인해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Flick 위원회

2013년부터 준법윤리경영 업무를 시작으로 회계감사 및 정보 흐름을 재정의, 교육훈련 시스템 평가 등 준법윤리 시스템 강화에 힘썼다. 기록 보관을 통해 사건을 명확히 조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하는 원칙들을 만들어 모든 사업과 운영과정에 적용하였다.

3. 옥슬리(Oxley)

1948년도에 설립되어 35개국에 LED라이트와 전자부품을 수출 및 보잉, 에어버스, BAE 시스템즈 등 여러 방산 및 항공 글로벌 기업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옥슬리의 반부패 정책의 특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있다. 부족한 인적 자원과 정보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전 영국의 국제무역부와 현지 대사관에 관련 정보 및 부정부패 위험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만들고 평가하는 기관이다. 전세계적으로 운영본부를 두고 있다. 영국본부에서는 국방산업 관련의 '국방반부패지수(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와 '방산기업반부패지수(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방 및 안보 기관의 업무 절차와 운영을 5가지의 위험 분야(정치적 리스크/재정적 리스크/인사 리스크/운영 리스크/조달 리스크)로 구분하여 77개의 세부 문항으로 평가한다. 반부패 리더십, 위험관리, 방침과 규정, 교육, 인적 통제의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A에서 F까지의 밴드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제3자의 시선으로 정부와 기업의 부패방지 행실을 평가하고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추구한다.

PCAW (Public Concern at Work)

1993년도에 설립된 시민단체로 내부고발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변호사 상담 등 내부고발자를 지원하고 있다. 내부고발을 통해서 부패, 뇌물, 안전 불감증 등 기업 내 문제들을 초기에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기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1988년도에 공익제보 보호법 (Public Disclosure Act)를 제정하였다. 현재, 내부고발자 혹은 예비 내부고발자를 자문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더나은 미래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1,2,3'
한겨레신문 '사우디왕자, 사상최대무기거래뇌물스캔들'
프레시안 '전세계 부패 사건의 40%가 무기거래에서 발생한다'

청렴 위반 사례

1 산하기관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혜채용 빌미 제공

기상청 직원 A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개인사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 하여 개인별 점수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공란의 채점표에 서명 날인 하였고, 이 후 다른 진흥원 직원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특혜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시사점 :

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청 산하기관이므로 기상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진흥원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위반임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 (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산하기관에 소속기관장의 자녀 및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상청 모 지방청장 A의 자녀 및 조카의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면접 채점표에 면접 점수가 임의 기재되는 방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소속기관장 A의 자녀와 조카가 특혜채용 된 의혹을 국무조정실에서 지적받음

시사점 :

① 기상청 모 지방청장 A는 이해관계자인 자신의 자녀와 조카가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채용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A는 신고를 생략하였으므로 행동강령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제2항 위반임

제9조의2(산하기관 등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②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 (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식마당

[독일] 글로벌 CSR의 방향

1. CSR의 부정적 시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부정적 시각은 단순히 대외적 사회공헌과 CSR에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오는 오해이다. 기업의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이거나 기업의 의지를 직원에게 강요하게 되거나 착한 일을 통해 수익성을 키우는 것은 힘들다는 등의 많은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기부, 재난구호, 및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Community Involvement)을 통한 CSR이 많이 알려져 사람들의 인식에 외부적인 행사인 듯 보이나, CSR의 기본인 ISO26000 국제 표준에서는 인권, 노동 규범, 소비자이슈, 환경, 공정거래까지 폭넓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남을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기업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또한, UN 국제노동기구(ILO)에서 UNGC 2030년 지속 가능한 목표와 ISO26000 및 OECD 가이드라인 등 많은 CSR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아직 한국에는 몇몇의 기업들만 지속가능보고서 정도만 실천하고 있다.

2. CSR made in Germany - CSR Action Plan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더욱 더 엄격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대를 반영하여 독일의 CSR은 변화하고 있다. 법과 규율의 나라답게 2009년도부터 정부차원에서 기업들을 위한 CSR 프레임을 제시했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CSR 포럼을 설립하고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정부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인권보장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다.

개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제로 기업과 사회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CSV개념과 연계가 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해결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

관련정책

. 독일 연방정부 세부 추진 목표:

1.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풍토 토착화
2. CSR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3. CSR 활동의 가시화 및 신뢰성 고취
4. CSR에 관한 정치적 환경의 최적화
5. 세계화에 있어 사회적 및 환경적 구성요소에 기여

독일 정부에서는 CSR 실천 계획(CSR Action Plan)을 통해, 기존의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으로 사용되던 'Made in Germany'를 CSR과 연계하여 'CSR-Made in Germany'로 부각 시켜 우수기업에는 'CSR-Made in Germany'를 부여하여 공공 입찰이나 구매과정에서 우대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이 CSR 참여 및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해 시민 및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 국가 CSR 포럼을 통해 2010년부터 경제 전문 언론인 설문조사를 통해 '독일CSR상'을 모범기업에게 수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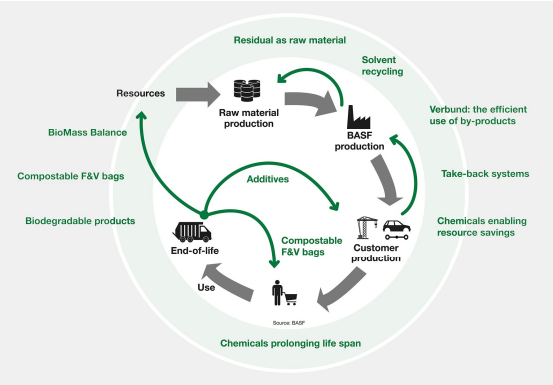
3. 독일 모범 CSR 사례

순환 경제 (Circular Economy)- BASF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 구조로써, 소모된 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의 기업이자 세계 1위 종합 화학기업인 BASF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We create chemistry for sustainable future)'라는 목표를 통해 화학연료와 폐기물을 발생 시키지 않고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지식마당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VERBUND는 BASF의 고유일관생산시설 방식으로 물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를 낮추고 폐기물과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BASF 순환 경제에 입각한 가치사슬

그 외에도 재활용 가능한 비닐 봉투(ecovio®)와 화학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용품(Lutropur®) 을 만들어서 자연이 오염되는 것을 차단한다. 1996년부터는 UN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맞춰 측정방법록과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신 제품 단위, 솔루션과 포트폴리오 구성, 전사 체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AG BalanceTM' 사실 기반 의사결정(Fact Based Decision Making) 시스템을 통해 어떤 작물을 돌려 짓기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2014년에는 'Value to Society' 성과 측정 프레임을 적용하여 사회 가치 및 훼손한 가치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인으로 표시하여 전체의 CSR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전략 수립을 한다.

트리플 버텀라인(Triple-Botton Line)- SAP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장기정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사람, 지구, 수익이라는 세가지가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Bottom Line은 회계장부에서의 가장 밑 칸을 의미하는 수익(Profit)에 해당되었지만, 수익 이외의 다른 개념들이 화두에 오르면서 사람과 지구가 포함되었다.

독일의 SAP 기업은 트리플-버텀 라인 관점에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의 3가지 측면의 가치를 기업의 성과로 측정한다. SAP는 12년 연속 디지털 부분 다우지수 지속가능경영 1위를 차지한 디지털 기업으로 9천명이상의 직원들이 세계 주요국가에 일하는 만큼 CSR에 대한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다. SAP CEO 빌 믹더몬트(Bill McDermont)는 국적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책 책무를 강조한다.

Sabbatical Portfolio

임직원들에게 장기봉사휴가를 통해 다른 나라의 사회 이슈를 해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프로보노' 활동을 추구한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으로 문제해결을 고민하는 것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과 리더십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포용적 조직 문화(Inclusive Environment)

2017년을 기준으로 25%의 리더가 여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2년도 까지는 여성의 비중을 30%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남미 등 이민자문화권과 소수인종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자폐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폐장애라는 '이유로' (In spite of Autism and because of Autism) 이라는 문구를 사용, 2020년까지 자폐장애인을 1%로 이상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사람에 대한 공감(Empathy)과 상호 작용으로 아이디어를 얻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는 방식을 강조한다.

Investopedia - Triple Botton Line
CSV Platform - 독일의 CSR 실천 계획
수원시평생학습관 독일 글로벌 기업의 CSR,혁신을 낳다
BASF 사이트, Global > Sustainability 중 Circular Economic Graphic

Quiz

1.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목표가 아닌 것은?

① 기업과 공공 행정기관의 사회적 책임 풍토 토착화
② CSR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③ CSR 관한 정치적 환경의 최적화
④ 기업에 CSR 투자이상의 성과 요구

2.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자원을 순환적을 사용하는 경제구조는?

① 순환 경제
② 공유 경제
③ 상업 경제
④ 지속 경제

3. 독일의 디지털 기업인 SAP의 CSR 프로젝트가 아닌 것은?

① Sabbatical Portfolio
② Value to Society
③ 포용적 조직 문화
④ 디자인 씽킹

4. 다음 중 트리플 버텀라인(Triple-Bottom Line)의 구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
② 사람
③ 문화
④ 수익

과월호 Quiz 정답 및 해설

1. 답 ④ 기업에 CSR 투자이상의 성과 요구

2. 답 ① 순환 경제

3. 답 ② Value to Society

4. 답 ③ 문화

관련 행사

1. The International 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시민의식에 대해 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트렌드 및 우수 사례들 소개

주최: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일시: 2019.04.28~30
장소: Dallas, Texas, USA

CONFERENCE HIGHLIGHTS

Exclusively designed for corporate citizenship professionals to engage in broad-ranging dialogue and learn practical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Conference highlights include:

- 25+ educational breakout sessions focused on CSR trends, insights, and best practices
- Seven general sessions featuring inspirational keynote speakers
- Multiple lunch and dinner receptions, industry summits, and networking events
- Largest industry film festival dedicated to recognizing CSR program excellence
- And much more!

https://ccc.bc.edu/content/ccc/international-corporate-citizenship-conference.html

독자 의견

본 뉴스레터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메일(advisor@jcons.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